

8월에 올라선 5위 'KT의 역사적 반란'

(창단 첫 6월 이후 5강 진입 성공)

선발 김민수 캐투·캡틴 유한준 3타점 KIA에 0-1로 진 NC 제치고 5위 점프 최악의 출발 극복한 이강철 감독의 힘 KT의 가을야구가 신기루가 아닌 이유

12경기. 불과 석 달 전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게임차였다. 그러나 거북이 처럼 느리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내딛었다. 마침내 5강 진입에 성공했다. 좀처럼 균열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5강 5약' 구도가 마침내 깨졌다.

KT는 4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김민수가 5이닝 2실점으로 버텼고, '캡틴' 유한준이 3타점을 올렸다. KT는 같은 날 KIA 타이거즈에 0-1로 분패한 NC를 제치고 5위에 올라섰다.

올 시즌 KT의 행보는 롤러코스터였다. 개막 12경기 2승10패로 최악의 출발을 했다. 당시만 해도 5강은커녕 탈락찌가 지상과제일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시즌 최종전에 가서야 9위를 확정했고, 그 전력에서 보강된 자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가장 큰 보강은 사령탑이었다. 올해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감독은 초반 시행착오를 딛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차갑게 선수단을 무었다. "초보감독답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출발은 최악이었지만 여름에 접어들면서 전력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창단 최다 9연승, 홈 3연승 위닝시리즈 등의 기록을 연이어 만들어내며 안정감을 갖았다. 최하위에서 6위까지 천천히 올라섰을 때만 해도 KT의 5강 가능성은 높지 않은 듯했다. 이 감독도 "5강이라는 평가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하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있다. 당장 다음 3연전보다 오늘 하루의 승패만 신경 쓰려고 노력 중"이라고 손사래 쳤다.



KT 선수들이 4일 고척 키움 전에서 5-3 승리를 거둔 뒤 그라운드에서 모여 기뻐하고 있다. KT는 이날 승리로 5위에 올랐다. 구단 창단 이래 8월에 5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창단 최초로 6월 이후 5강 진입에 성공했다. KT는 1군 진입 첫해였던 2015년, 5월에 단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다. 2016년에는 5월 14일 이후 최하위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에도 4월 25일, 지난해에도 5월 3일 이후 5강에서 멀어졌다. 승패 격차가 크지 않은 5월을 넘어 8월에 올라선 5위라 이번 결과는 더욱 뜻깊다.

군건하던 5강5약 판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도약이었다. 올 시즌 KBO리그는 시즌 초부터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 키움, LG 트윈스, NC의 5강 구도가 뚜렷했다. 이 다섯 팀을 제외한 팀이 5위에 올라선 건 4월 10일 한화 이글스가 마지막이다. 이튿날인 11일부터 8월 3일까지 114일간 5강 5약 구도가 이어져왔다. KT가 115일 만

에 이를 무너뜨린 셈이다. 5월 11일까지 KT의 승패마진은 -14였다. 5월 6일, 당시 3위였던 NC와 KT의 승차는 무려 12경기에 달했다. 하지만 KT는 이 차이를 석 달 만에 좁혀냈다. 아울러 -14였던 승패마진도 -3(50승1무53패)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KT의 가을야구. 더는 신기루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고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강정호

ML 재도전 vs 국내 컴백 '양도지명' 강정호 갈림길

키움 측 "아직 복귀 의사 없다 밝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로부터 양도지명 처리된 강정호(32)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메이저리그 재도전과 국내 복귀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정호는 3일(한국시간) 날짜로 양도지명(Designated For Assignment) 처분을 받았다. 절차에 따라 피츠버그 40인 로스터에서도 제외됐다. 7일 내인 오는 10일까지 메이저리그 다른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이네리트로 신분이 이관되거나 자유계약(FA) 신분으로 풀린다.

'빅 리그' 재도전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다. 강정호는 올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을 기록했다. 파워에서는 늘 그렇듯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꾸준한 콘택트 능력과 수비력에서는 의문점을 남겼다. 많은 제안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복귀를 선택할 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스리아웃' 전력이 있지만 당시 KBO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KBO는 올해 음주 사고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징계를 강화했다. 강정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국내 복귀 시 키움 히어로즈로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키움에서는 장기 출전정지 징계에 예정된 선수를 떠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키움 김치현 단장은 4일 "강정호 측이 지금은 국내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를 포함한 해외리그 재도전을 1순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콜이 있다고 들었다. 국내 복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택은 결국 강정호의 몫이다. 메이저리그에 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국내 복귀도 생각해야 한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만 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그의 정착지는 어디가 될까.

고척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삼성 내야진이 완성한 시즌 1호 삼중살

이원석-김호재-러프 완벽한 연결 프로야구 출범 후 38년간 72회만

삼성 라이온즈 내야진이 그림 같은 삼중살을 완성했다.

삼성은 4일 잠실 LG 트윈스전 2회말 무사 1·2루 위기에서 3루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삼중살의 정석을 선보이며 순간에 위기에 벗어났다. 이 수비로 큰

위기를 넘긴 삼성은 2-1,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며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삼중살은 무사에 최소 2명 이상의 주자를 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성립되는 만큼 성공하는 팀은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

윤성환은 LG 유강남을 상대로 2구째 시속 126km 포심패스트볼을 던져 3루수 땅볼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타구를 잡은

3루수 이원석이 곧바로 베이스를 밟아 2루 주자 박용택을 아웃 처리했고, 2루수 김호재에게 연결해 1루 주자 김민성도 포사 아웃시켰다. 김호재의 깔끔한 1루 송구를 다룬 러프가 침착하게 받아 유강남까지 잡으며 삼중살을 완성했고, 윤성환은 힘껏 박수를 치며 기쁨을 만끽했다. 올 시즌 첫 삼중살이 완성된 순간이다. 1982년 프로 출범 후 38년간 72회에 불과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록이다.

가장 최근 기록은 지난해 9월 25일 한화 이글스가 대전 삼성전에서 기록했다. 무사

1·2루에서 삼성 이원석의 타구를 한화 송광민이 잡아 3루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삼중살로 연결한 바 있다. 당시 희생 양이었던 이원석이 이번에는 삼중살의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4월 6일 사직 LG-롯데 자이언츠전과 9월 25일 대전 경기까지 두 차례 삼중살이 나왔다. 지난해 4월 6일 경기에선 LG 타일러 윌슨이 롯데 민병헌에게 땅볼을 유도해 기록을 완성했는데, 이때도 3루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삼중살이었다.

잠실 |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노그가 프로가?" 힘 실리는 '외인 확대' 목소리

10구단 체제...급격한 경기력 저하 외국인선수 제도 손질 필요성 대두



정재우의 오버타임

올해 KBO리그에선 '투고타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타고투저'의 시대가 극적으로 저물고 있다. 공인구의 반발력을 일본프로야구 수준으로 낮추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한 결말이다. 지난 5년간의 타고투저가 한낱 거품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타고투저의 원인을 놓고 '타격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지목했던 현장 야구인들과 전문가들을 멱살하게 만드는 결과다.

투고타저의 도래와 더불어 '야구의 꽃'이라는 표현이 줄자 공교롭게 관중도 줄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은 매년 800만 관중을 넘어섰지만, 이대로라면 올해는 여의치 않다. 800만 관중의 마지노선인 경기당 1만

1000명대에 미달하고 있다. 삼백여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관중추이에 따라 판가를 날 전망이다. 무더위를 씻어줄 시원한 홈런포가 평평 터져주기만을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관중의 발걸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선 새로운 흥행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시즌 초반부터 상·하위권의 극심한 전력차가 부각된 터라 더 절실하다. 몇몇 팀들의 경기력은 과연 프로에 어울리는지 종종 의심을 때도 있다. 어이없는 실책, 끝내기 폭투뿐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투수를 보고 있노라면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 10년간 KBO리그의 인프라와 환경은 몰라보게 개선됐다. 구단은 2개 더 늘었고, 곳곳에 최신식 구장이 속속 등장했다. 100억 원 넘는 몸값으로 갑부 대열에 합류

한 스타들도 생겼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경기력은 당연한 요구임에도 팬들은 물론 현장 야구인들은 한숨을 짓는다. 연봉 1위 팀이 "노그가 프로가?"라는 빈정거림을 사고 있으니 말이다.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될 리는 만무하다. 쏟아 부은 돈 만큼 능력이 올라가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니 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한시적이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선수 등록·출전 규정의 손질도 그 중 하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무작정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경기력에 대한 비난, 그로 인한 관중감소의 근본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명 등록·2명 출전이던 외국인선수 규정은 2014년부터 3명 등록·2명 출전으로 바뀌었다. 2013년 제9구단 NC 다이노스

가 1군에 합류하고 2015년 제10구단 KT 위즈가 데뷔하는 사이의 시기였다. 그 덕에 한동안 KBO리그에서 종적을 감췄던 외국인타자들도 되돌아올 수 있었다. 급격한 구단수의 증가에 따른 경기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2년 간격으로 2개 구단이 늘어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음이 올해도 리그 전체의 경기력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무한보유·4명 등록인 일본프로야구처럼은 아니더라도 KBO리그의 외국인선수 규정 역시 현실에 맞게 재손질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신규 외국인선수 계약에 한해 100만 달러 상한선을 설정한 여파로 교체 자원을 제대로 수급하기도 어려워졌다. KBO리그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경기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jace@donga.com**